

## CEO, 끝이 좋아야 한다(3)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행백리자반구십(行百里者半九十) 백리길을 감에는 처음 구십리와 나머지 십리가 서로 맞먹는다.”

옛 중국 진(秦)나라 무왕(武王)이 말년에 무리수를 자행하니 이에 대해 걱정한 신하가 간(諫)한 말이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나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과 짝이 맞는 말씀이다.

즉 가능한 한 ‘적극적 끝내기’를 하라는 말이다. 마음을 비워 CEO의 자리를 이양하고 의연하게 새로운 삶이나 죽음을 맞으라는 ‘소극적 끝내기’는 이미 지난 컬럼에서 얘기한 바 있다.

적극적 끝내기의 첫째는 무엇보다 구태와 낡은 사람과 ‘악업’을 청산하는 일이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 천하를 얻었다. 그 후 그는 공신들을 차례로 처단했다. 명장 한신도 걸리적거리다가 체포의 몸이 되었다.

“토사구팽(兔死狗烹) 토끼를 사냥하고 나면 사냥개는 쓸모가 없어져서 삶아 먹히는구내!” 한신이 처형되면서 뱉은 말이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어느 정치인이 사용했다. 명퇴 등을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널리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 구태와 낡은 사람 걷어내야

“천하를 잡을 때는 함께 했지만 천하를 다스릴 때는 함께 해서는 안된다.”

아예 미리 떠난 지혜로운 명참모 장량의 말이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유방의 사후까지 중용된 소하(蕭何)가 있을 뿐이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최고의 명군으로 칭송 받는다. 문물이 모두 풍성해지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하지만 태종의 악역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세종대왕의 눈부신 치적이 가능했겠는가. 태종은 공신이라든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득이 되지 않는 낡은 사람(?) 자신의 측근조차 과감히

도려내면서 구태와 악업을 청산했다. 검찰 총장이 새로 등장하면 사시동기나 선배들이 퇴진해주는 관행도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가. 기업CEO의 퇴진 때도 훌륭한 전통은 이어가되 구태는 사라져야한다. 개별적으로는 잔인한 노릇이지만 떠날 사람과 남을 사람 또 새로운 인재 등용의 분수령이 되어야 한다.

둘째, CEO퇴진의 적극적 끝내기는 그가 힘써 모았던 부와 가치를 사회에 되돌려주는 일이다. ‘정승같이 돈을 벌어 정승같이 쓰는’ 슬기를 발휘하는 것이다. 멋지게 버는 것 못지 않게 멋지게 쓰는 게 너무 중요하다. 앤드루 카네기는 일평생 모은 재산 거의 전부를 사회에 환원했다. 돈으로 성공한 노블레스 오블라주의 모범이 아닐 수 없다.

## 가진 것을 사회로 환원 시켜야

현대 디지털 문명의 총아 빌 게이츠도 그들 부부의 이름을 딴 재단을 출범시켜 전세계에서 압도적으로 큰 재단이 되어 각종 자선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부호들이 계속 줄을 잇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떤 충격 속에서도 결코 카지노자본주의로 전락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러한 멋진 사회 환원은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식과 경륜을 가진 전문경영인도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길이 있다. 일본의 산업연구기관으로 야노 경제연구소가 있다. 갓 퇴임한 각 산업 경영자와 기술자들의 산업연구보고서를 묶어 내는 기관이다. 이른바 현실을 생생하게 겪은 실물경제전문가들이 생생한 보고서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셋째, 마지막 적극적 끝내기는 ‘실패담’을 남기는 일이다. 대체로 성공한 CEO라고 불리는 이들은 자서전으로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또 그것으로 돈버는 일에 유혹 당하기 쉽다. GE는 창사이래 사고와 실패사례를 기록 보관 활용하는 회사로도 독보적이다. 성공기 못지 않게 실패의 고백을 남겨 후배들에게 덕을 베푸는 일은 무엇보다 고귀한 일이다.

대한민국 곳곳에서도 CEO들의 적극적 끝내기가 넘쳐 ‘힘차고 새로운 시작’이 출발되기를 기대한다.